

17세기 조선시대 복식 일례(I) (17世紀 朝鮮時代 服飾 一例(I))

-시흥 출토 남양 홍씨 유의-
(始興 出土 南陽 洪氏 遺衣)

金 明 淑

(忠清實業專門大學 衣裳科 教授)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服飾史的 意義와 檢討 |
| II. 출토 및 조사경위 | V. 맺음말 |
| III.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 |

I. 머리말

본 글은 경기도(京畿道) 시흥군(始興郡) 군자면(君子面) 선부리(仙府里) 山 13-2에 자리했던 남양(南陽) 홍씨(洪氏) 우협공(禹協公)의 묘(墓)에서 출토(出土)된 복식류(服飾類)에 대한 보고(報告) 논문(論文)이다. 이 묘(墓)는 새로운 반월 도시의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1985년 충북(忠北) 중원군(中原郡) 노은면(老隱面) 대성리(大城里) 山 62로 이장(移葬)하게 되었다. 이 이장 과정에서 수십점의 복식류(服飾類)가 시신(屍身)에 입혀진 채, 혹은 관내(官內)의 공간을 메꾸거나, 상례(喪禮)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던 바 그대로 출토(出土)되었던 것이다.

충북(忠北) 중원군청(中原郡廳)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피장자(彼葬者)인 홍우협(洪禹協)은 조선시대(朝鮮時代) 효종(孝宗) 6년(1655)에 태어나, 숙종(肅宗) 2년(1676),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풍천도호부사(行豊川都護府使) 해주진관(海州鎭管)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절형장군(折衡將軍))의 지위(地位)에 올랐으나, 숙종(肅宗) 17년(1691) 36세(歲)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한편 그의 부(父)인 수범(受範)은 통덕랑(通德郎), 조부(祖父)인 처윤(處尹)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황해관찰사(黃海觀察使), 증조부(曾祖父)인 명원(命元)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의 지위에 올랐던 바, 가문(家門)이 대대로 고위관직을 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출토(出土)된 복식류(服飾類)는 1차로 홍우협(洪禹協)의 팔대손(八代孫)인 홍갑표씨(洪甲杓氏) 등이 수집한 명정(銘旌) 및 포류(袍類) 등 13점이 있고, 필자가 홍씨(洪氏)의 안내 및 배려로 묘(墓)를 답사 2차로 수집한 저고리, 바지 등 30여점이 있는데, 본 고에서는 우선 1차로 수집된 복식류만을 다루었다. 이번에 출토된 복식류는 시대적으로 볼 때 17세기 후반의 복식이 될 것이며, 이미 학계(學界)에 보고된 김덕원공(金德遠公), 홍진종공(洪鎭宗公) 등의

복식유물과 거의 같은 시대의 것으로,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에 첨가 보완할 점도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朝鮮時代) 실물(實物) 복식(服飾)연구의 시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소개코자 한다.

II. 출토 및 조사 경위

지난 1985년 충북 중원군 금가면 문산리에 거주하는 홍갑표씨(洪甲杓氏)(61세(歲))와 승표씨(承杓氏)(58세(歲))는 경기도 시흥군에 자리잡고 있는 8대(代) 조부(祖父) 우협공(禹協公)의 묘(墓)를 이장(移葬)하게 되었다. 이 현장(現場)에 참여하였던 승표씨(承杓氏)의 전언(傳言)에 의한 출토경위 및 상황은 다음과 같다.

봉분은 상당히 컸으며, 게다가 석회층이 단단하게 관(棺)을 덮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관(棺)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은 내관(內棺)과 외관(外棺)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관(外棺)의 뚜껑을 열자 관 위에는 붉은 명정(銘旌)이 길게 놓여 있었다. 다시 내관(內棺)의 뚜껑을 여니, 흰 안개와 같은 기운이 서렸다가 흩어지면서 미이라化한 시신(屍身)이 발견되었다.

시신(屍身)의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투로 틀어 모았으며 여기에 은(銀)으로 생각되는 흰색 동곳을 끼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곳은 이장(移葬)할 때 다시 묻었다고 한다.

시신(屍身)의 가슴 위에는 붉고 노란 현훈(玄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 검은 두루마기가 개켜져 있었으며, 시신(屍身)에게는 여러벌의 수의가 입혀져 있었으며, 관(棺) 공간에도 여러 가지 복식과 부장품(副葬品), 필단 등으로 메워져 있었다.

제일 곁에 입힌 옷은 황색(黃色) 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으로 만든, 소매 좁은 포(袍)와 답호(答袴)이었다. 그리고 답호(答袴)의 허리 부분에는 요대(腰帶)가 둘러져 앞으로 매어 있었고 이 요대(腰帶)위에 각대(角帶)가 둘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후손 홍씨(洪氏)는 이 각대(角帶)역시 이장(移葬) 때 다시 묻었다고 한다.

이 옷속에도 많은 옷을 겹쳐 입히고 있었는데, 홍씨(洪氏)는 그 가운데 곁에 입혔던 비교적 깨끗한 것을 골라 포류(袍類) 9점, 요대(腰帶) 1점, 명정(銘旌) 1점, 현훈(玄纁) 2점 등 모두 13점을 모아 집에서 근 2년간을 그늘에서 말려 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수의 등은 잘 벗겨지지 않아 겨드랑이 부분을 칼로 찢어 벗겼으며, 이를 기타의 관내(棺內) 보공품 등과 더불어 천금(天衾)으로 둘둘 싸서 관 속에 버리고 흙으로 덮어 버렸다고 한다.

충북(忠北) 중원군(中原郡) 내에 이러한 고복식(古服飾)이 있다는 정보가 군청에 알려지자, 문화공보실(文化公報室)의 신흥기(申興基)실장이 홍씨택(洪氏宅)을 답사하여 그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황색 협수(狹袖) 포(袍) 1점과 명정(銘旌) 2점, 현훈(玄纁) 2점 등을 군청으로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었다. 필자는 군청에 이러한 복식류(服飾類)가 보관되고 있다는 소식을 충주문화(忠州文化)유적 연구자인 본교의 장준식(張俊植) 교수로부터 전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필자는 신(申)실장 및 장(張)교수의 안내와 배려로 군청에 보관된 복식류를 실측 조사케되었고, 다시 홍씨택(洪氏宅)을 방문하여 보관 중인 복식류도 실측도 실측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복식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으나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고, 거품을 해 온 탓인지 악취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필자는 그후 후손 홍씨(洪氏)로부터 시흥의 묘(墓)터에 버리고 온 복식 등이 있음을 전해 듣고, 기회를 얻어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장(移葬)하고 난 지 근 2년이 지난 까닭으로, 잡초가 우거져 있는 속에서 관(棺)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위에는 당시 파냈던 석회덩어리들이 흩어져 있었고, 내관(內棺) 및 외관(外棺) 뚜껑이 근처에 놓여져 있었다.

山の 한쪽 기슭이 깎아져 내린 것을 보아, 과연 봉분이 컸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관내(棺內)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 우선 삼으로 이것부터 제거를 해야 했다. 때마침 우기(雨期)때라 빗물에 젖은 진흙과 복식류는 한데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잡초 뿌리인지 실밥인지 구별할 수 없어 진흙 덩어리 채로 수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집된 복식류 등은 수십번 물에 행귀 그늘에 말려 실측 조사 中에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보고하고자 하며, 우선 1차로 조사한 복식류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Ⅲ.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1. 종류 및 수량

1차로 수집, 조사한 복식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 | | |
|-------------------|---|----------|
| (1) 명정(銘旌).....1점 | ┆ | 답호(襜褕) 1 |
| (2) 현훈(玄纁).....2점 | ┆ | 첩리(帖裏) 1 |
| (3) 포류(袍類).....9점 | ┆ | 두루마기 1 |
| (4) 요대(腰帶).....1점 | ┆ | 옆·뒤트인포 1 |
| ————— | | 옆트인포 5 |
| 계(計) | | 13점 |

2. 치수 및 특징

- (1) 명정(銘旌)



〈사진 1〉 銘旌

<사진 1> 명정(銘旌)

출토 당시 내관(內棺) 위에 펼쳐져 있었다는 이것은 붉은 색 얇은 무문사(無紋紗)로 제작된 것으로, 심하게 퇴색되어 부분적으로 붉게 얼룩져 있고, 거의 누런색을 띄고 있다. 폭(幅)은 65cm 정도로, 직물의 폭(幅)을 그대로 쓰고 있어 당시의 직물(紗) 폭 치수를 알 수 있다. 길이는 2m 12cm로, 긴 한 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26자(字)의 한자(漢字)가 가로 9cm, 세로 8cm 크기의 묵서(墨書)로 쓰여 있다. 즉,

「통훈대부행풍도호부사해주지진영병마동첨절제사홍공지추(通訓大夫行豐川都護府使海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洪公之樞)」

이로 볼 때, 피장자(彼葬者)의 생존시(生存時) 관품(官品)이 정삼품(正三品)에 이르렀고, 황해도지방(黃海道地方)의 무관직(武官職)을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명정의 양 쪽 가장자리는 폭 그대로 두었고, 아래 위 부분만 가늘게 접어 공굴러 올리 풀어지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보존상태를 볼 때, 먹글씨는 다소 번졌으나 뚜렷이 알아 볼 수 있으며, 그러나 바탕 형질이 얇고 삭아서 다릴 수가 없는 상태이다.

(2) 현훈(玄纁)

현훈이란 문자 그대로 현색(玄色)과 훈색(纁色)의 비단(帛)으로 만든 부장품(副葬品)의 하나라고 하겠다.

「남양홍씨대관(南陽洪氏大觀)」을 보면, 「현훈이란 폐백(弊帛)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란 빛과 붉은 빛의 비단인데, 이것을 색실로서 동심결로 묶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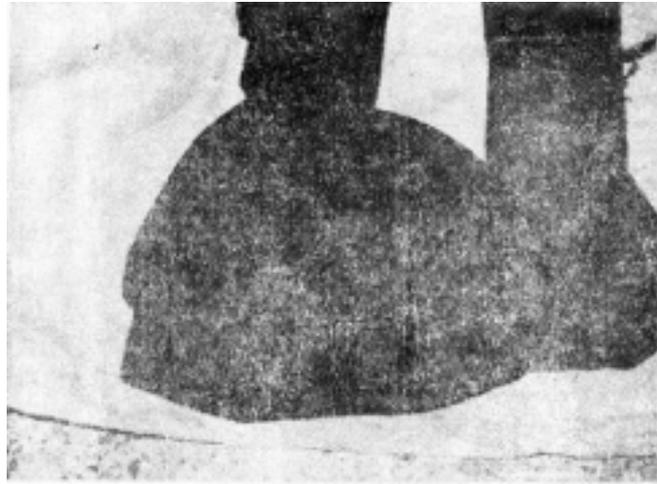
(도 1) 명정(銘旌)

한편,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시신(屍身)의 매장시(埋葬時) 부장(副葬)하는 품목(品目) 가운데 「홍청사백(紅靑絲帛)」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¹⁾이 역시 현훈(玄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로부터 상례(喪禮)를 성대히 치러 왔던 우리나라 풍습으로 볼 때, 현훈(玄纁)의 출토(出

1) 「壬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충북대학교박물관, 1983.

土) 사례는 없지 않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그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다. 금번 출토(出土)된 현훈은 그 크기, 형태, 직물 문양, 색 등에서 처음 소개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사진 2〉 玄 纁

<사진 2> 현훈(玄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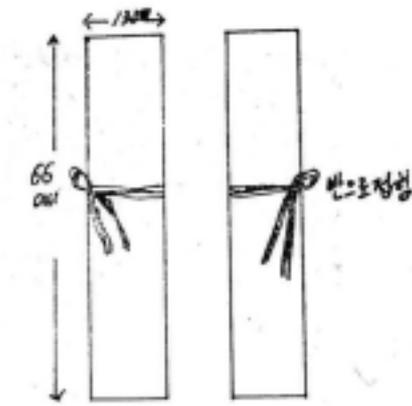
출토(出土)된 현훈은 2매(枚)로, 1매(枚)는 붉은 색 비단에 머루, 다람쥐문양과 함께 칠보문(七寶紋)이 시문(施紋)되어 있고, 다른 1매(枚)는 황색(黃色)비단으로, 바탕에 구름문양과 칠보(七寶)문양이 장식, 직조되어 있다.

완성된 형태는 가로 13cm, 세로 66cm의 직사각형으로, 길이의 가운데를 반으로 접어 놓았고, 접힌 부분을 바탕색과 같은 명주 색실 4-50가닥으로 묶어 주고 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는 큰 칫수의 비단을 여러번 접어 제작하였는데, 이를 펼쳐 보면 폭 66cm, 길이 약 200cm(황색 현훈은 197cm, 붉은색 현훈은 202cm 임) 정도의 비단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접는 방법은 2매(枚) 모두 동일한데, 여섯 번을 접고 있다. 우선 긴 형질을 폭 방향으로 반을 접고, 또 그 반을 접는다. 다시 4접인 형질을 전과 같은 방향으로 접되, 중심선(中心線)을 향해 양 쪽에서 반 씩 2회 접는다. 그리고 양 끝이 만난 선을 맞접는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접은 방향과 직각되는 방향으로 반을 접는다. 그리고 마지막 접은 선에 실 타래를 묶어 준다.

이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훈 1매(枚)를 펴보면 모두 $2 \times 16 = 32$ 칸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토(出土)된 현훈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문양이 선명하다. 황색 현훈의 그림문이나 칠보문 등은 복식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어, 충북 증원군청에 보관된 포(袍), 그리고 홍씨택(洪氏宅)에 소장 중인 답호(襜褕) 등의 문양과 같다.



(도 2) 현훈
(도 2) 현훈(玄纁)

그런데 붉은색 현훈에는 머루 잎과 열매, 다람쥐, 칠보문양 등이 연속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데 특히 다람쥐문양은 머루문을 사이에 두고 행(行)마다 방향을 바꿔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 출토(出土) 예(例)가 드물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그 문양이 내포한 상징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²⁾ 및 역대의 「국장(國葬)」 및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에 보면, 상례(喪禮) 때 부장(副葬)하는 품목(品目)의 하나로서 ‘증백(贈帛)’³⁾ 이란 것이 있는데 그 설명(說明)에 현색(玄色)과 혼색(纁色)으로 마련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증백(贈帛)과 현훈(玄纁)이 서로 같은 품목(品目)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출토(出土)된 현훈(玄纁)의 색(色)이 왜 현색(玄色) 아닌 황색(黃色)으로 마련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황색(黃色) 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포(袍)

이 포(袍)의 겉은 황색(黃色) 칠보운문(七寶雲紋) 단(段)으로 제작되었는데, 같은 재료로 만든 답호가 이 포(袍) 위에 입혀져 있었다고 한다. 실상 이 포(袍)는 옆과 뒤가 트여 있는 점이 답호와도 같고, 그 의차(衣次)(재료)가 같고, 출토된 상태가 양호하면서 뒤 트임의 시작 부분에서 동일하게 약 7cm 옆으로 찢어져 있는 점 등, 공통점이 있어, (4)의 답호(襜)와 함께 끼워져 있던 옷으로 보인다.

안감은 국화문(國華紋), 모란문(牡丹紋), 운문(雲紋) 등이 잔잔하게 장식된 명주로 되어 있다. 이 포(袍)는 손상도 거의 없고, 타(他) 포(袍)처럼 목 뒤의 오염도 부착되지 않아 생존시에도 평시 자주 입지 않고, 귀하게 여겼던 옷으로 생각된다. 다만 뒤트임의 시작부분이 찢어진 것은 출토(出土)과정 중에 생긴 것 같다.

2) 「國朝五禮儀序例」, 卷五, 凶禮, 服玩圖說에 贈帛에 관한 기록이 있다.



〈사진 3〉 黃色七寶雲紋緞 袍

<사진 3> 황색칠보운문단 포(黃色七寶雲紋緞 袍)

이 포(袍)의 깃은 칼깃 형태로, 안깃은 끝에서 26cm 떨어진 지점에서 한 번 이은 자국이 있다. 동정은 겹깃 끝에서 16cm, 안깃 끝에서 17cm까지, 62cm 길이로 달려 있다. 고름 4개 역시 깨끗한데, 겹고름 2개는 바탕감과 다른 우글쭈글한 다갈색 형겹으로 만들어 뒀고, 안고름 2개는 안감과 같은 형겹으로 만들었다.

소매는 착수(진동 30cm, 수구 16cm)이며, 거의 직배래이나 약간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 포(袍)의 양 옆에는 무가 달려 있고, 그 무의 옆 하단이 트여 있다. 그리고 뒤 중심선에도 고대에서 54cm 내려와 트임을 주었다. 바느질은 정교하며, 누비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형태상이 포(袍)의 가장 큰 특징은 뒤트임 아래 양옆에 달린 2개의 매듭단추와 고리이다. 즉 밑단에서 13cm 올라온 뒤 트임선 양쪽에, 땃은 진갈색 단추가 달려 있고, 뒤길 양쪽에 이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매듭단추를 이 고리에 끼우면, 뒤 트임이 더 벌어지면서 안감이 내 보이게 되며, 따라서 안에 입은 옷도 내 보이도록 되어 있다. 이 단추의 역할이 장식적인 것 외에 어떤 예(禮)의 형식을 따른 것인지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매듭단추는 포(袍)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이 사용된 것 같지 않으며, 형겹이 접혀진 자국도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착용시에 반드시 단추를 고리에 걸게 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포(袍)는 현재 충북(忠北) 중원군청(中原郡廳)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뒤와 옆이 트인 점, 의차(衣次)가 화려하여 외의(外衣)일 가능성이 크면서 착수 직배래인 점, 그리고 매듭단추와 고리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4) 황색(黃色) 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답호(襦□)

앞서의 (3)번 포(袍)와 같이 화려한 의차(衣次)로 제작되어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앞·뒤길이 같고 옆과 뒤중심선이 트여 있다.

목둘레선은 등글게 U자 모양으로 뒀으며, 뒤보다 앞을 많이 뒀다. 목둘레선은 약간 도둑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섬세하게(1cm 당 8-9땀 정도) 바탕감보다 진한 색 실로 반박음질 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치 바이어스를 목둘레에 댄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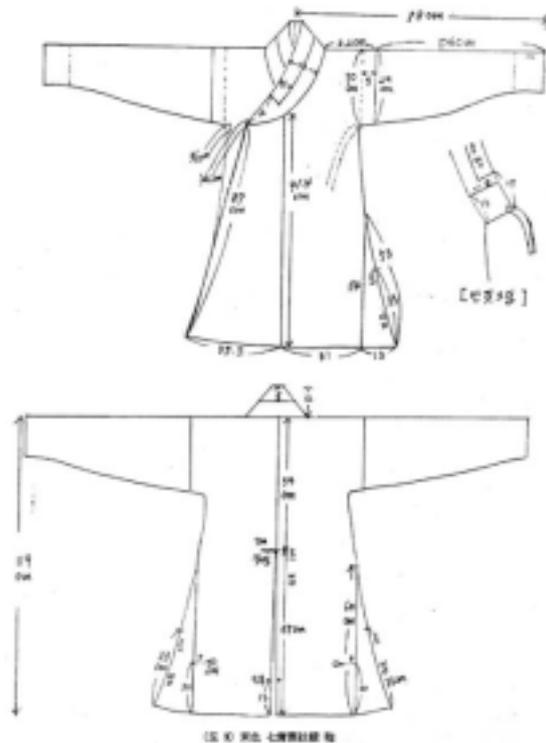
앞 여밈을 보면 입어서 왼편에는 단추 3개를 달았던 흔적이 있고, (지금도 단추는 떨어져

고, 실 꼬투리만 남아 있는데, 홍씨(洪氏)의 말에 의하면, 출토(出土) 당시에는 노란색 단추가 달려 있었다고 함) 오른쪽에는 고리가 3개 있는데, 그 간격은 12cm에서 14cm 정도이다. 매듭고리는 진한 갈색 형접을 가늘게 말아 2줄을 마련, 이를 서로 붙였는데, 바탕 겹감고 안감사이에 이 고리를 밀어 넣고 겉에서 두 번 상침하여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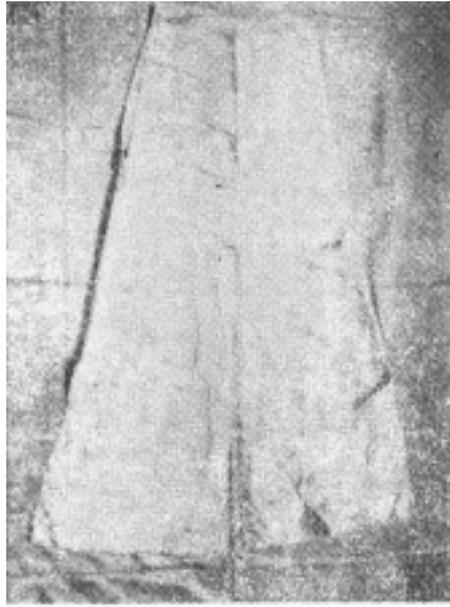
〔사진 4-1〕 황색(黃色)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담호(前面)

<사진 4-1> 황색(黃色)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담호(전면(前面))



〔도 3〕 황색(黃色) 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포(袍)

(도 3) 황색(黃色) 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포(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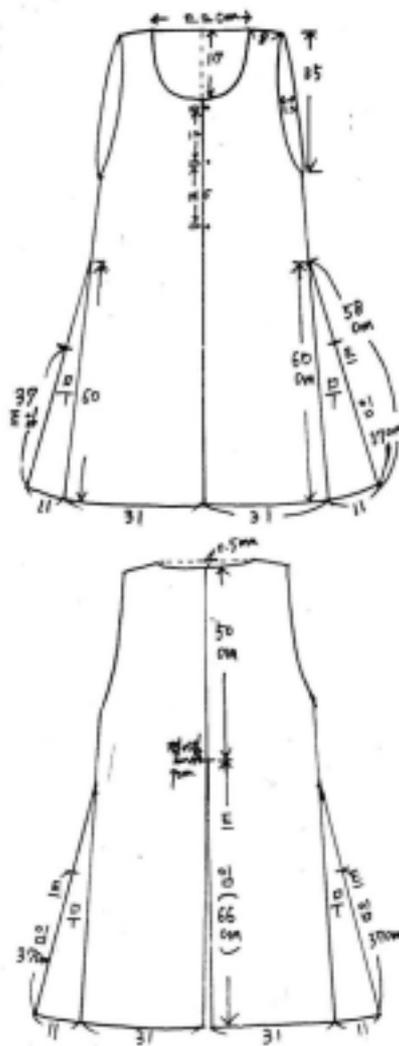
〈사진 4-2〉 後 面
 <사진 4-2> 후면(後面)

소매둘레를 보면, 뒤보다 앞으로 더 과 주어 활동에 편하게 하였으며, 어깨 솔기없이 앞 뒤를 접어서 1장의 형식으로 재단한 것을 알 수 있다.

깃과 동정, 고름 등은 없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中期)까지는 답호에 깃과 동정이 달리 다가 후기에 가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렇지 않은 예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즉 (17C 후반) 조선 중기에도 깃과 동정이 달리지 않은 답호가 착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진 4-3> 黄色 雲紋 七寶紋緞 답호(影)
 <사진 4-3> 황색(黃色) 운문(雲紋) 칠보문단(七寶紋緞) 답호문양(紋樣)



(도 4) 황색(黃色) 칠보(七寶) 운문단(雲紋緞) 담호(1/10 축도)

(도 4) 황색(黃色) 칠보(七寶) 운문단(雲紋緞) 담호(1/10 축도)

(5) 검은색 겹 명주 두루마기

이 포(袍)는 홍씨(洪氏)의 말에 의하면, 시신(屍身)의 가슴 위에 개켜져 있었던 것이다.

겉감은 검은 콩물을 들인 듯한 검은색 명주이며, 안감은 겉감보다 다소 거친 소색(素色) 명주로 만들었고, 안팎 모두 무문(無紋)이다.

깃은 칼깃 형태로, 동정이 원래는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부장(附葬)하기 위해 동정을 떼는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 그 흔적으로 볼 때, 동정의 나비는 6cm이고 겉깃 끝에서 16cm 되는 곳부터 동정을 대고 있다.

홍씨(洪氏)의 말에 의하면, 수의에는 동정을 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금번 출토(出土)된 복식에서는 동정이 없는 옷보다는 있는 옷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사진 5〉 검은 색 겹 명주 두루마기

<사진 5> 검은 색 겹 명주 두루마기

이 포(袍)는 무가 있고, 사방이 두루막혀 오늘날의 두루마기와 거의 같은 형태인데, 이미 1590년대의 김덕령공(金德齡公)이나, 전박장군(傳朴將軍)의 유의(遺衣)가운데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 포(袍)의 상태는 양호하나, 안감부분에서 좌, 우 무달린 부분의 실밥이 길게 뜰어져 있다. 고름 4개 가운데 왼쪽 겨드랑이의 안고름은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인다. 누비는 하지 않았고, 박음 솔기를 보면 무와 길은 박아서는 길 쪽으로 꺾고, 무와 무를 박아서는 뒷 길 쪽으로 꺾는 점이 오늘날의 두루마기와 같다. 그러나 고름달았던 방법은 오늘날과 달리 반드시 박은 솔기를 위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포(袍)의 안깃 끝에 달린 고름은 박음 솔기가 아래를 향(向)하도록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름을 단 곳이 이번 출토된 복식가운데 몇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로서는 이렇게 고름을 달아도 무방했었던 것 같다. 소매가 직배래, 착수(窄袖)인 이 포(袍)는, 바느질이 비교적 정교하고, 목 뒤 등에 오염이 부착되어 있어, 평시에 착용했던 옷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깃 앞단, 밑단 등의 외곽선을 죽 돌아가며, 6~7cm 안으로 들어와, 두 뺨씩 3cm간격으로 반박음질로 바느질하고 있는데, 이는 장식효과도 있으면서, 안이 겹으로 밀려 나오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실용적인 효과도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이 포(袍)에 대해 더욱 연구되어야 할 점은, 하필이면 이 두루마기를 접어 시신(屍身)의 가슴위에 올려 놓았는지 하는 점이다. 이 두루마기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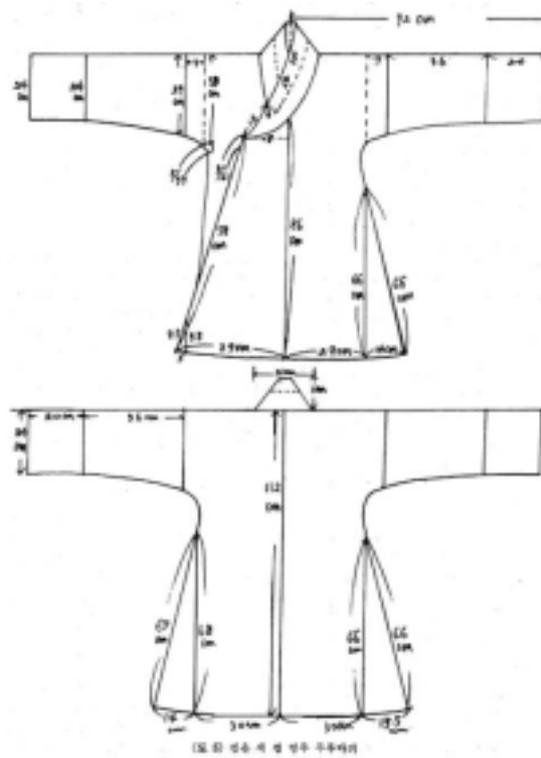
중요치수로는 총길이 112cm, 화장 92cm, 소매넓이 29cm, 진동 33cm, 부리 24cm 등이다.

(6) 다갈색 홉 철릭(帖裏)

겉감만으로 구성되었는데도, 재료자체가 무겁고 뻣뻣한 느낌을 주어,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삼베나 명주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상(裳)은 모두 7폭으로, 소매가 큰 두리소매이며, 칼깃 형태이다.

홉으로 만든 까담에 허리와 등, 겨드랑 부분에 안단을 대어 주고 있다. 허리의 안에는 약 7cm 너비의 안단을 대어, 의(衣)와 상(裳)의 연결을 튼튼히 해 주고 있으며, 등에 댄 안단을 보면, 뒤 그림과 같이 만들었는데, ○표한 부분은 겉감에 바느질로 고정시켰고, ×표한 부분

은 겹겹에 고정시키지 않고, 시점을 안으로 넣어 흠질을 한 후, 그 중간 부분을 살짝 겹감에 정거, 고정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겨드랑이에 댄 안 바대를 보면 뒷장의 그림과 같이, ○표 부분은 겹감에 완전히 바느질로 고정시켰고, ×표한 부분은 고정시키지 않아 활동에 자유로움을 주면서도 튼튼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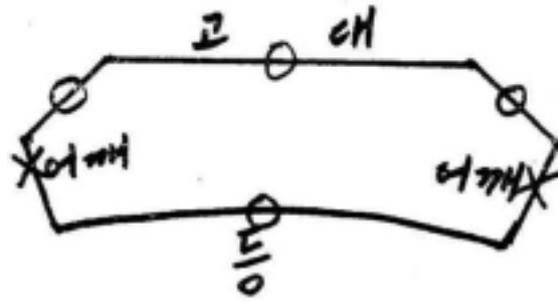


(도 5) 검은 색 겹 명주 두루마기



<사진 6> 다갈색 홀 천릭(帖裏)

<사진 6> 다갈색 홀 천릭(帖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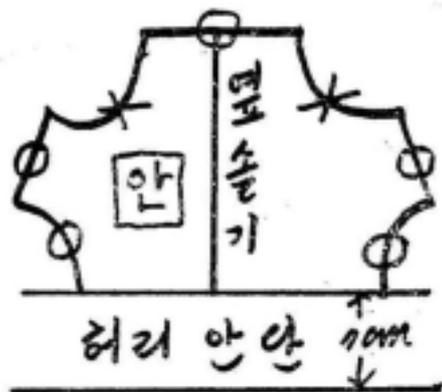


(도 6) 철릭 안쪽의 등바대

(도 6) 철릭 안쪽의 등바대

바탕감에 누비나 무늬 등은 나타나 있지 않고, 의(衣)와 상(裳)의 비율은 거의 1 : 2가 되고 있다.

다음은 소매의 매듭단추연결에 관한 것이다. 이 철릭은 입어서 왼쪽의 소매중간을 매듭단추로 연결하고 있는데, 실측 과정에서 발견한 점은, 이 연결부분은 화장길이의 꼭 3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단추는 소매 앞 뒤를 돌아가며, 모두 7개가 달려 있는데, 맨 위에는 앞 뒤에 끼우도록 2개가 함께 붙어 바느질 되어 있고, 앞·뒤 중간에 2개씩, 밑에 1개가 달려 있다. 그리고 매듭고리가 달린 안부분을 보면 가로 2.4cm, 세로 1.4cm의 직사각형 형점을 별도로 대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 매듭 단추가 장식용으로만 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주 붙였다 뗐다 하도록 실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7) 철릭 안쪽의 겨드랑 바대

(도 7) 철릭 안쪽의 겨드랑 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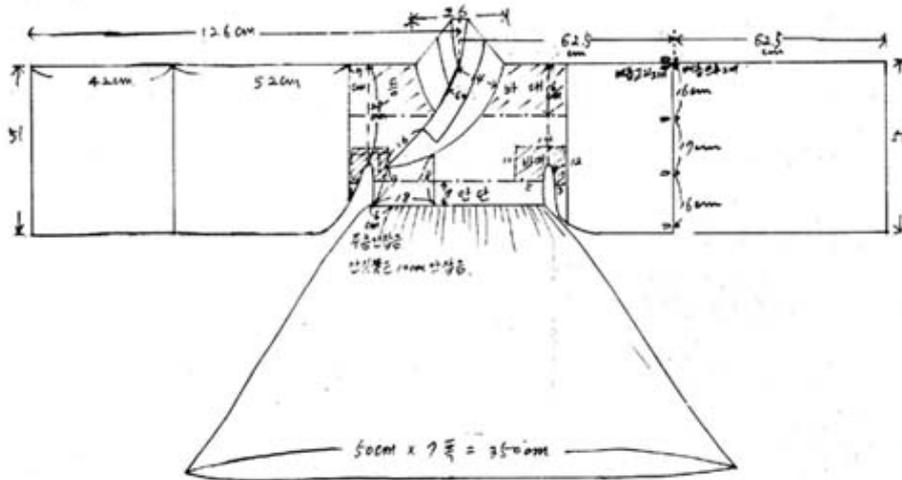
소매부리(수구) 쪽에는 6cm 정도의 단을 안으로 대고 있는데, 그 안감은 바탕감과 다른 재료를 쓰고 있다. 매듭단추를 떼어 놓고 보면, 길에 붙은 소매 끝에 매듭고리가 달려 있는데, 단은 1cm정도 접어 박아, 원래의 수구보다는 간단하게 단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장이 170cm인 성인 남자가 이 철릭의 소매를 떼고 입었을 경우, 그 소매는 반수(半袖)가 아니라 손목까지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衣)부분에는 결섵과 안섵이 있고, 깃에는 고름이 역시 홀으로 만들어져 달려 있고, 동정이 있는데, 깃고대 안 쪽에는 평시 착용할

때 부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오염이 있다.

상(裳) 7폭에는 입어서 왼쪽 방향으로 한쪽 주름이 잡혀져 있는데, 밑단으로 가서는 그 주름이 퍼져 있다. 그리고 겉설피쪽의 단에는 5cm정도, 그리고 안설피쪽에는 10cm정도 주름을 잡지 않아, 여머지는 부분을 부풀리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바느질 법은 오늘날의 치마나 순천 김씨(順天金氏) 철릭 등의 주름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겹쳐지는 상(裳) 안에만 주름을 잡지 않고 있는 점이 본 철릭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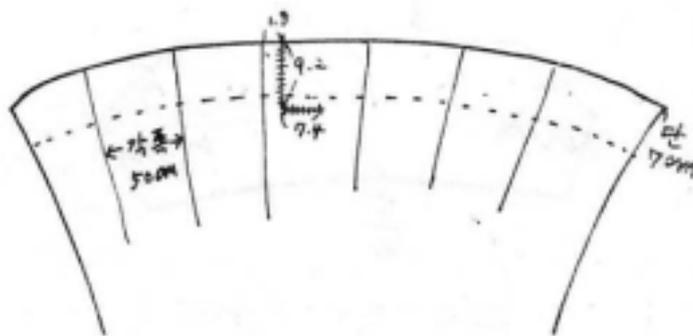
그런데 이미 보고된 바의 김덕원공(金德遠公)의 철릭은 상(裳)의 옆 폭을 트고 있는데, 거의 같은 시대에도 철릭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철릭의 상(裳)을 자세히 보면, 50cm폭 형겅이 7폭이어졌고, 가장 가운데 폭 아래 부분에 I자로 짜깁기한 부분이 있다. 이는 평시 착용했던 옷임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가 되겠는데, 이는 애초 옷을 만들기 전에, 보수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裳)폭의 시점은 양쪽 5mm정도 내외로서 이 철릭을 만든 형겅의 폭은 51~52cm인 것을 알 수 있다.

중요 치수로는 의(衣)길이 42cm, 상(裳)길이 81cm, 뒷폭 53cm, 화장 125cm, 고대 26cm, 수구 50cm, 소매넓이 51cm 등이다. 상(裳)의 주름나비는 2.6~2.8cm로, 입어서 왼쪽을 향해 잡았고 주름수는 39개이다.



(도 8) 다갈색 홀 철릭

(도 8) 다갈색 홀 철릭



(도 9) 裳의 안쪽 수선한 부분

(도 9) 상(裳)의 안쪽 수선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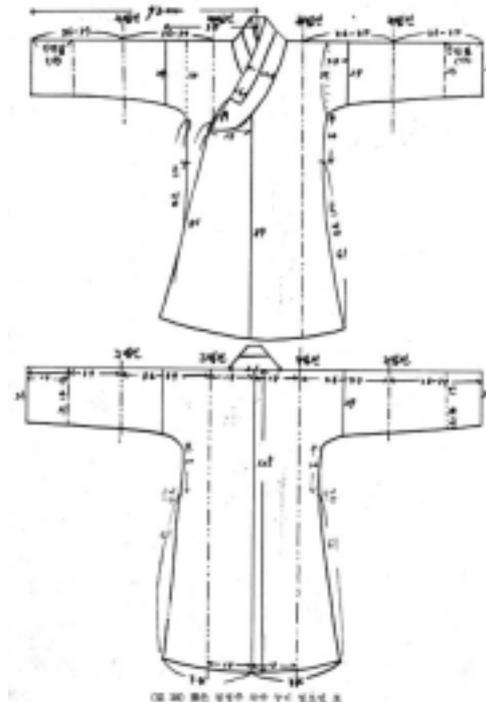
(7) 소색(素色) 겹(袂) 유(襦) 명주 착수(窄袖) 누비 옆트인 포(袍)

안팎 모두 소색(素色) 무문(無紋) 명주로 지었으며, 안감이 조금 더 성글다. 겹감과 안감 사이에 명주솜을 넣은 것이 등술 터진 곳으로 보인다. 안감의 등술 터진 부분에는 얇은 솜과 더불어 거뭇거뭇한 것이 붙어 있다. 이 포(袍)의 특징은 누비의 간격을 아주 넓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36~37cm 간격으로 누벼주고 있는데, 등술 양옆 18cm 정도에 한줄씩 누볐고, 그 선에서 양쪽으로 36~37cm 간격으로 또 누벼주고 있다(그림에는 —·—·—·선으로 표시함).



17) 素色 袂 襦명주 窄袖 누비 옆트인 포

<사진 7> 소색(素色) 겹(袂) 유(襦)명주 착수(窄袖) 누비 옆트인 포(袍)



(도 10) 소색(素色) 겹명주 착수 누비 옆트인 포

소매는 착수이면서 직배라인데 부리에서 17cm까지의 부분에는 안단을 대고 있어서 안감과 더불어 모두 3겹으로 되어 있다. (안단 선은 —·—·—·로 표시함).

고름 4개는 모두 있고 깃은 칼깃 형태로, 겹깃 끝에서 17cm 떨어져 동정을 6cm 너비로 달아주고 있다. 중요 치수는 총길이 125cm, 화장 93cm, 뒷폭 58cm, 고대 21cm, 진동 27cm, 수구 23cm 등이다.

(8) 소색(素色) 겹유 명주 착수 누비 옆트인 포(袍)

안팎 모두 무늬 없는 소색(素色) 명주로 지었고, 누비 간격을 1.4cm로 하여, 포(袍) 전체를 누비고 있다. 깃은 칼깃 형태로 동정 및 고름 4개는 모두 달려 있다. 그러나 겹깃과 안깃에 단 고름의 박은 선이 밑으로 향하고 있어, 오늘날과 다르게 고름을 달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소매 형태는 착수 직배라인데, 소매부리에서 15cm정도 안으로 들어온 부분까지 안단을 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안감까지 모두 3겹임을 알 수 있다.



[8] 素色 겹유 명주 착수 누비 옆트인

<사진 8> 소색(素色) 겹유 명주 착수 누비 옆트인 포(袍)

이 포(袍)는 전체적으로 (7)포(袍)와 같은 형태이나,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겹깃 아래의 양쪽 끝과, 안섷의 옆선 쪽 아래, 그리고 뒷깃 아래의 양 쪽 끝에 너비 1~2cm, 길이 5~7cm 정도의 작은 섷을 대고 있는 것이다. 당시 명주폭의 치수는 35cm 정도로, 감이 적어 섷을 잇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섷을 길 양옆에 대줌으로 해서, 곡선 효과를 주며, 그 부분에 바느질을 한번 더 해주므로 해서, 튼튼한 효과를 주게 된다고 하겠다. 이번 출토된 포(袍)류 가운데 이런 처리를 한 예가 몇 번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 제작법은 아닌 것 같다.

옆트임은 겨드랑이에서 18~20cm 떨어진 곳에 시작되어, 72cm정도 트였다. 그리고 안섷의 바깥쪽 선을 제외하고는 겹섷, 뒷깃, 도련선, 옆트인선 등 외곽선을 죽 돌아가며, 1cm정도 너비의 안단을, 바이어스 아닌 직선으로 잇대고 있다. 이렇게 안단을 대는 방법은 다른 출토포(袍)의 경우에서도 보여지고 있어, 당시 제작방법의 한 예를 알 수 있다.

이 포(袍)는 다른 옷에 비해 목 뒤에 오염이 적은 편인데, 중요 치수로는 총길이 122cm, 뒷폭 58cm, 고대 19cm, 화장 88cm, 수구 22cm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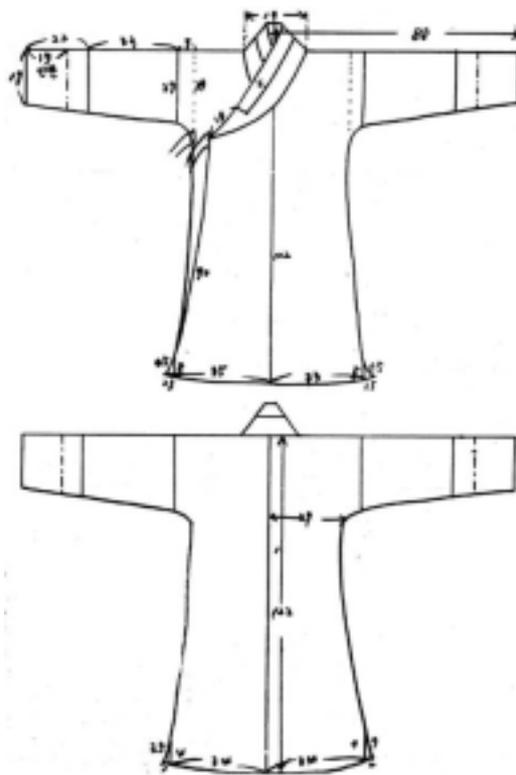
(9) 소색(素色) 겹 명주 누비 광수(廣袖) 옆트인 포(袍)

안팎 모두 소색(素色) 명주로, 포(袍) 전체를 1.4cm 간격으로 누볐다. 깃은 칼깃 형태로 깃감을 누벼서 재단한 후 달았으며, 깃의 바로 바깥 선을 죽 돌아가며 숨댂 주고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처럼 누비 바느질이 유행했던 까닭은 무엇이며,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 또 누비지 않은 포(袍)와 용도상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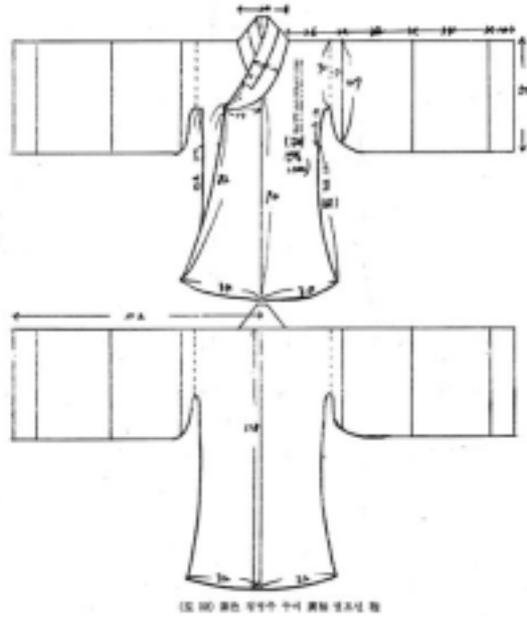
9) 素色 겹 명주 누비 두리소매 옆트인 포

<사진 9> 소색(素色) 겹 명주 주비 두리소매 옆트인 포(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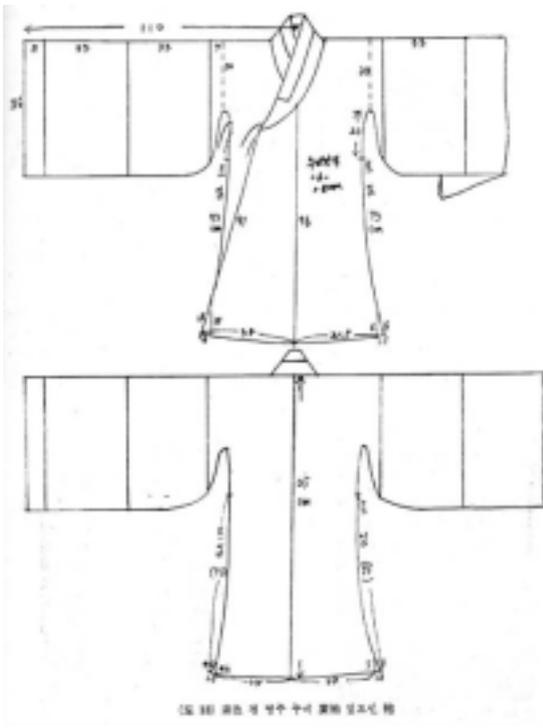
(도 11) 素色 겹 명주 착수(窄袖) 누비 옆트인 포

(도11) 소색(素色) 겹 명주 착수(窄袖) 누비 옆트인 포(袍)



(도12) 소색(素色) 겹명주 누비 광수(廣袖) 옆트인 포(袍)

이 포(袍)의 소매는 두리소매로 넓으며, 수구 역시 다 트여 넓다. 옆트임이 68cm 정도인데, 옆 트임을 준 선과 도련선이 당의(唐衣)의 느낌을 주는 듯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포(袍)의 또한 특징은 안감 쪽에서 볼 때 안설펀이 바깥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 즉 겹설펀의 양 쪽 아래 끝과 뒷길의 양 쪽 아래 끝의 다섯 곳에 작은 설펀을 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8)의 포(袍)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이나, (8)의 포(袍)는 겹에, 이 포(袍)는 안에 작은 설펀을 달았다는 점이 다르다.



(도 13) 소색(素色) 겹 명주 누비 광수(廣袖) 옆트인 포(袍)

이 포(袍)역시 (8)포(袍)처럼 양 옆트임선과 뒤 자락 등 외곽선을 돌아가며, 1~1.2cm정도 너비의 직선단을 대드로 해서, 울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튼튼한 효과를 주고 있다.

이 포(袍)에도 목 안 쪽부분에 오염이 많이 배어 있어, 평소 착용하던 옷 그대로를 수의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요치수로는 총길이 110cm, 뒤폭 57cm, 화장 110cm, 고대 20cm, 진동 30cm, 수구 50cm 등이다.

고름 4개 및 동정도 잘 남아 있으나, 동정이 조금 뜯어져 있다.

(10) 소색(素色) 겹 명주 누비 광수(廣袖) 옆트임 포(袍)

안팎 모두 소색(素色) 무문(無紋) 명주이며, 깃 형태는 칼깃형태이다. 이번 출토된 포(袍)류는 모두 칼깃 형태라는 점이 한 특징이 되겠다.

소매는 두리소매로서 부리 역시 소매넓이와 같게 트여 있다.

1.6~1.8cm 간격으로 옷 전체를 누볐는데, 깃이나 섶 등을 보면 누벼서 재단한 후에 재봉한 것을 알 수 있고, 깃은 길에 단 다음, 그 외곽선을 길 부분에서 쪽 돌아가며 다시금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름 4개와 동정 모두 잘 달려 있다.



진 10> 소색(素色) 겹 명주 누비 광수(廣袖) 옆트임

<사진 10> 소색(素色) 겹 명주 누비 광수(廣袖) 옆트임 포(袍)

이 포(袍)역시 (8)의 포(袍)와 마찬가지로 앞·뒤길의 양 끝에 아주 작은 섶을 달아주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중요부분의 치수는, 총길이 125cm, 뒷폭 56cm, 고대 19cm, 화장 110cm, 진동 30cm, 소매길이 넓이 및 부리 56cm 등이다.

(11) 소색(素色) 겹 명주 광수(廣袖) 옆트임 포(袍)

안팎 모두 소색(素色) 명주로 만들었는데, 다른 감에 비해 더욱 부드럽고 깨끗하다. 깃은 칼깃형태로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약간 보일 뿐, 동정은 없다. 고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달았던 흔적도 없다. 애초에 달지 않았던 것 같으며 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보아, 외의(外衣) 보다는 내의용(內衣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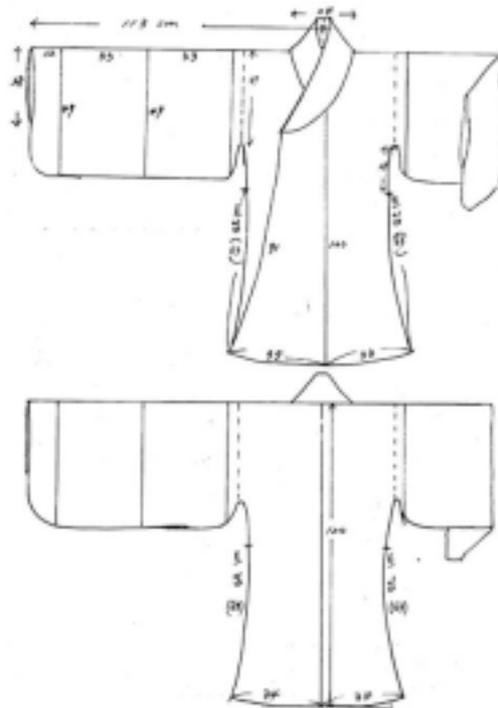
타(他) 포(袍)에 비해 목 뒤의 오염도 거의 없어, 새로 지었던 옷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

은 몇번 입던 옷을 빨아 수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길의 옆 트인 선과 밑 도련선은 곡선을 이루고 있어 오늘날의 당의(唐衣)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곡선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니, 겉감에는 각 길 끝에 작은 섶을 대지 않았는데, 안감의 각 길 끝을 보면 안길의 바깥 끝을 제외한 5곳에 작은 섶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감의 폭이 좁아서 댄 것이 아니라 곡선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진 11] 素色 겉 명주 광수 옆트인 포

<사진 11> 소색(素色) 겉 명주 광수(廣袖) 옆트인 포(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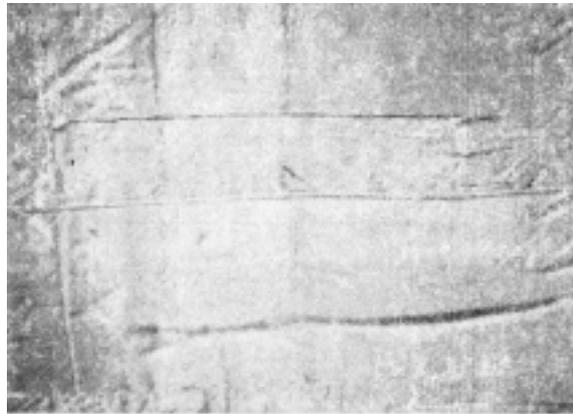
[도 14] 素色 겉 명주 광수 옆트인 포

(도 14) 소색(素色) 겉 명주 광수(廣袖) 옆트인 포(袍)

중요 부분의 치수로는 총길이 120cm, 화장 113cm, 진동 37cm, 소매넓이 49cm, 고대 24cm, 수구 28cm 등이다.

(12) 금사용문직(金絲龍紋織) 요대(腰帶)

금번 출토(出土)된 복식류 가운데, 금사(金絲)를 넣어 용문(龍紋)과 운문(雲紋)을 나타낸, 가장 화려한 품목(品目)이다. 가로 103cm, 세로 20cm의 직사각형인 이 요대(腰帶)는, 같은 용문금직단(龍紋金織緞)으로, 안은 소색(素色) 무문(無紋) 명주로 만들었는데, 양옆 3~4cm 정도에는 별도의 황색(黃色) 연화 당초문단을 안팎으로 대고, 양 가장자리에 13~16cm 정도의 끈 세 개를 달았다. 출토 당시, 이 요대(腰帶)는 시신의 허리를 둘러 앞으로 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 요대(腰帶)위에 각대(角帶)도 있었다고 한다(그런데 각대(角帶)와 동곳은 이장(移葬)때 다시 묻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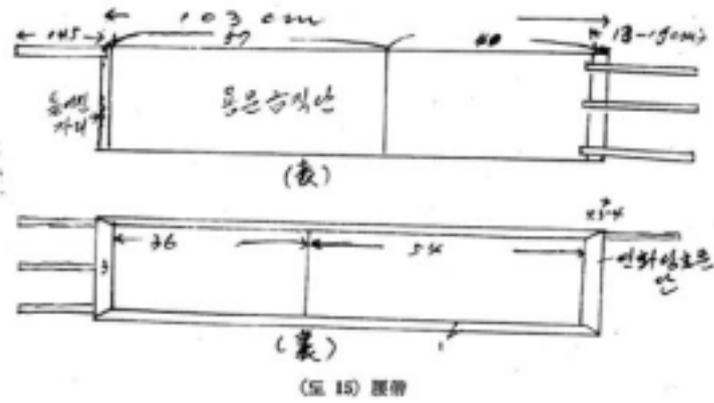
〈사진 12-1〉 金絲龍紋織 腰帶

<사진 12-1> 금사용문직(金絲龍紋織) 요대(腰帶)



〈사진 12-2〉 腰帶의 雲龍紋

<사진 12-2> 요대(腰帶)의 운용문(雲龍紋)



(도 15) 요대(腰帶)

지금 이 요대(腰帶)의 한 쪽 끝에는 끈 3개가 모두 달려 있으나, 다른 한 쪽에는 1개만 남고, 2개는 떨어진 흔적이 있는데, 언제 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출토(出土) 때 떨어져 나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출토(出土)된 포(袍)의 경우에서 볼 때, 땀던 고름이 떨어질 때는 다른편 고름과 함께 매어져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바탕에 시문(施紋)된 용문(龍紋)은 운문(雲紋)과 함께 있으며, 용은 이방(二方)으로 연속되어 있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비늘로 덮여 있다. 다리는 4개이며, 발톱 역시 4개인 사조용문(四爪龍紋)이다. 눈은 둥글고 머리를 약간 위로 젖힌 옆 모습의 행용(行龍)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며, 머리에는 4~5가닥의 화염이 뻗어 있어 뿔(각(角))인지 화염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원래 용문(龍紋)은 구군복(具軍服), 전복(戰服) 등 무관(武官)의 대(帶)에 그 무늬가 장식되어 있어 용맹스러움을 상징하고 있으니, 이 요대(腰帶)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대(帶)는, 김덕원공(金德遠公)(1634~1704) 일가(一家)의 유물에서도 보이고 있어, 17세기 조선시대에 이러한 대(帶)가 통용(通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요대(腰帶)는 실물(實物)로서도 출토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문헌에서도 보이고 있다. 즉, 정조(正祖)의 대감의대품목(大歛衣櫛品目) 가운데 「금사용문직(金絲龍紋織) 요대(腰帶)」란 것이 있는데, 재료나 문양, 용도 등이 출토된 실물(實物)과 일치되고 있어, 동일(同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복식유물 실측표

(단위 : cm)

번호	복식명 (번호) 실측부위	황색포 (黄色袍) (3)	답호 (搭口) (4)	철릭 (帖裏) (5)	두루마기 (6)	옆트인포 (7)	옆트인포 (8)	옆트인포 (9)	옆트인포 (10)	옆트인포 (11)
1	총 길 이	119	115	衣42 裳81	112	125	122	118	125	120
2	뒤 품	55	50	53	60	58	58	57	56	67
3	화 장	85		126	92	93	88	112	110	113
4	고 대	22	20	26	21	21	19	20	19	24
5	소 매 길 이	63		93	56	55	55	84	75	79
6	소 매 넓 이	29		51	29	24	27	50	56	49
7	진 동	30	35	29	33	27	29	30	30	37
8	수 구	16		50	24	23	22	50	56	28
9	곁섚넓이(上)	14.5	×		18	17	17	17	18	20
10	" (下)	35.5		18	39	37	35	34	38	35
11	안섚넓이(上)	6	×	0.5	6	9	6	6	6	9
12	" (下)	25		1.8	21	25	28	24	22	24
13	곁 섚 길 이 (안)	91.4	×	18	86	89	102	90	96	100
14	" (밖)	87		9.4	78	81	90	82	91	91
15	안 섚 길 이 (안)	93	×	8	79	88	95	91	96	97
16	" (밖)	81		7.2	71	75	80	82	90	80
17	깃 길 이	97		90	104	104	96	96	95	112
18	곁 깃 길 이		×	47	44	52	48	52	63	67
19	깃 나 비	12.4		14	11	11	12	11	12	12
20	동 정 길 이	×	×	62	×혼적 78	70	66	67	65	×
21	동 정 나 비	6.2	×	6	×(6)	6	6	5	5	×
22	동정 위치(곁깃)	16		15	×(16)	17	15	15	16	×
23	" (안깃)	17		15	×(15)	18	16	14		×
24	곁깃고름(길이/나비)	46/2.5	×	50/5	61/5	90/6	57/3.4	62/3	55/3	×
25)	45/3	×	35/5	57/5	62/6	57/3.4	63/3	52/3.5	×
26	곁겨드랑고름 (")	35/2.6	×	35/3	44/2	53/2	49/2	63/2	50/3	×
27	안 깃 고 름 (")	30/3	×	37/2.5	45/2	53/2	50/2	63/2	45/3.5	×
28	안겨드랑고름 (")	33	37	×	×	61	72	68	73	×
29	옆 트 임 길 이	9	×	×	×	20	18	17	20	×
30	겨드랑 ~ 옆트임 누 비 간 격	×	×	×	×	36-37	1.4	1.4	1.6-1.8	×
31	무 밑 변	앞 13 뒤 14	11	×	17					
32	무 길 이	앞 53.5 뒤 58	58	×	66					
33	뒤 트 임 길 이	65	65	×	×	×	×	×	×	×
34	고 대~ 뒤 트 임	54	50	×	×	×	×	×	×	×
35	단 추 나 고 리 수	단추 2 고리 2	단추× 고리 3	단추7 고리7	×	×	×	×	×	×
36	곁	곁	곁	홀	곁	곁	곁	곁	곁	곁
37	색	황 색	황 색	다갈색	黑 色	素 色	素 色	素 色	素 色	素 色
38	무늬	겉: 雲紋七寶紋 안: 국화모란운문	雲紋	×	×	×	×	×	×	×

이 요대(腰帶)는 모두 3종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탕인 운룡문단, 양옆의 연화당초문단, 그리고 무문(無紋) 명주로 된 안감과 끈이다. 그리고 걸감과 안감은 폴로 배접한 듯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상으로 출토된 품목(品目) 가운데 복식 9점의 실측치수 및 특징을 표로 만들어 앞 장과 같이 정리하였다.

IV. 복식사적(服飾史的) 의의(意義)와 검토(檢討)

금번 출토(出土)된 홍우협공(洪禹協公)(1655~1691)의 복식(服飾)을 실측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정리하여 그 복식사적 의의를 밝히고,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복식사적(服飾史的) 의의(意義)

① 우선 피장자(彼葬者)의 생졸연대(生卒年代)가 확실하여 출토된 복식(服飾)의 연대를 17세기 후기로 볼 수 있다.

② 이상 보고된 복식(服飾)은 모두가 보공품(補空品)이 아닌 수의(壽衣)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며, 목 뒤에 오염이 묻어 있거나 수선한 곳이 있는 등으로 보아 평소 착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명주(明紬)나 사(紗)보다는 단(緞)이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색도 덜 바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직조법이나 염색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 포류(袍類) 9점 가운데 옆트인 포(袍)가 5점으로 가장 많이 출토(出土)되었다. 당시 사대부(士大夫)에게 가장 많이 착용된 포(袍)라고 생각된다.

⑤ 우리나라 조선 중기(中期)에는 상당히 다양한 포(袍) 종류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종류에 하나 더 첨가하게 된 것이 황색(黃色) 칠보운문단(七寶雲紋緞) 포(袍)이다. 옆과 뒤가 트이고 착수이며, 뒤 중심끝 양쪽에 매듭단추를 달아 걸 수 있게 된 점 등의 형태상 특징이 있다.

⑥ 조선시대 직물 문양 가운데 다람쥐 문양은 드물게 보고되는 것으로, 현훈(玄纁)에 사용된 이 문양의 상징성은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⑦ 같은 시대에도 칠릭의 상(裳)은 트이게도 안트이게도 제작되었다.

⑧ 창의(斿衣)의 소매가 초기에는 협수였다가 숙종(肅宗) 김덕원대(金德遠代)에(1704) 오면, 광수화(廣袖化)한다는 설(說)이 있으나, 3) 금번 출토된 옆트인 포(袍)에는 협수(狹袖)와 두리소매가 모두 제작되고 있으므로, 이 설(說)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착용시기나 용도에 다소 구별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검토(檢討)되어야 할 문제점

① 복식(服飾), 특히 포(袍)의 명칭이 보고자에 따라 다르다. 특히 대창의, 소창의, 중치막 등 옆트임과 뒤트임, 소매크기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있는데, 착용되던 당시의 명칭

3) 「壬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3.

을 찾아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때까지는 통일된 방법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장의(長衣)나 직령(直領)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② 한 사람이 착용하던 옷도 치수가 다양하게 제작되었으므로 복식의 시대별 변천을 치수만으로 파악하는 어렵다고 하겠다.

③ 복식(服飾)의 연대(年代)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임란(壬亂)이나 병란(丙亂) 등, 큰 전쟁의 명칭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이 복식(服飾)에 큰 영향을 주게된 요인이 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구태어 전쟁명칭을 복식의 시대에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기별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④ 앞으로는 치수와 형태별 변천과 더불어 복식재료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재료감별, 밀도과악, 염색법, 보관법 등에 대한 것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 17세기 조선시대 복식의 일례(一例)를 남양 홍씨 출토유의를 중심(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1차로 출토된 것만을 보고하였으나 기회를 빌어, 2차 출토된 복식과 더불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홍우협공(洪禹協公)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등 정삼품(正三品)의 고위층으로 비교적 사치스런 의생활(衣生活)을 영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식에 사용된 재료는 비단이나 명주 등이고 포(袍)의 종류가 다양하며, 가지 수도 30여벌 정도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용문(龍紋)이나 운문(雲紋), 칠보문(七寶紋) 등과 더불어 머루문, 다람쥐문, 연화당초문 등 화려한 문양이 직조된 비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비단의 산지(產地)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출토품 가운데, 현훈(玄纁)이 있어 당시 상례(喪禮)의 풍습을 알 수 있게 된 점은 수확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새로운 고(古) 복식(服飾)이 차차로 출토됨에 따라, 보고 내용은 수정·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